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회 이슈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수준 높은 프로젝트들이 선정되어 선보일 예정이다. 해외 파드너 시넥스포럼(CNEX Chinese Doc Forum)의 프로젝트는 추후 공개된다.

미완성 및 미개봉, 미방영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하는 '러프컷 세일(Rough cut sales)' 부문에는 11편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올해의 '러프컷 세일' 부문에는 피칭포럼 개최부터 지난해까지 인천다큐포드 K-PITCH 부문에 선정되어 프로젝트 개발이 진행된 많은 작품 중 상당수가 한층 더 발전·완성된 프로젝트로 러프컷 세일 부문에 공모 권수를 하며 화제를 모았다. 2015년 글로벌 피치로 선정되었던 이승준 감독의 <그림자 꽃>을 비롯하여 2015년 인천다큐멘터리포럼의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강성우 감독의 <김춘>, 그리고 2014년 <비상식한 프로젝트>의 강호준 감독은 <스물오브라>를 갖고 러프컷 세일을 찾는다. 2016년 제주 허녀들의 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물숨>으로 인천다큐포드를 찾았던 고희영 감독은 또 다른 '숨'을 담은 <물숨>으로 다시 인천을 찾는다. 2018 DMZ 국제다큐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될 왕민철 감독의 <동물원> 역시 만나볼 수 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인천다큐포드를 통해 후반 작업을 위한 다양한 후원사원의 기획·함께극장 개봉 및 TV 방영을 위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의 기회를 얻게 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29개의 프로젝트 중 러프컷 세일 부문 참가작 11편을 제외한 18편의 한국 및 아시아 프로젝트들은 국내외 다큐멘터리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집중 튜터링 프로그램인 '다큐랩'을 통해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올해 '다큐랩'은 작년 대비 하루를 연장하여 4박 5일간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진행될 계획이며, 그룹·개인별 튜터링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과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 받는 다큐멘터리 전문 행사로 입지를 굳힌 제5회 인천다큐멘터리포럼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물림포스호텔(구: 파라다이스 호텔 인천)에서 권행되며, 참가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각종 지원금 및 펀드, 후원 지원 등도 조만간 별도 공개될 예정이다.

TVLogic, IBC 2018에서 신제품 공개



F-7H

TVLogic은 오는 9월 14일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IBC 2018에 참가해, 7" Field Production Monitor F-7H를 비롯하여 LVM-1715 17", LVM-2415 24" 등 신제품 Monitor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F-7H는 7" 크기의 Full HD(1920 x 1080) Production Monitor다. 업계 최고 수준인 3600nits의 휘도 Level이 가장 큰 특징으로, Monitor Hood가 없거나 빛이 강렬한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보여준다. LVM-1715 17", LVM-2415 24"는 Full HD 해상도, Wide-Gamut Reproduction(최대 DCI-P3), 향상된 명암비 및 넓은 시야각을 갖추었으며, IPS LCD Panel의 QC-Grade 모델이다. LVM-1715와 LVM-2415는 HDR EOTF의 PQ, HLG 및 SLog3와 함께 HDR Emulation 기능, 그리고 3D LUTs와 다양한 Cinema Camera log-to-linear LUTs를 제공한다.



LVM-1715



LVM-2415

한편, NextoDi가 IBC 2018에서 TVLogic 부스에 합류하여 NEXTO Series를 선보일 예정이다. NEXTO Series는 특히 밝은 'X-copy'기술을 통해 빠른 작업 속도를 제공하며, 다중 Drive 동시 복사 기능인 M-Copy로 최악의 상황에서 Data 안전성을 보장한다. TVLogic 부스는 IBC 2018 전시장 Hall 10의 C27에 위치한다.

제머나이소프트-中 후이마이그룹, CMS 구축 계약 체결

디지털 미디어 관리 플랫폼 전문 기업인 제머나이소프트(대표 강진욱, www.gemiso.co.kr)가 중국 최대의 비디오 쇼팅(홍쇼핑)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베이징 후이마이온라인 네트워크 과학기술 유한회사(이하 후이마이그룹, 대표 푸웨이징, www.huimai365.com)에

콘텐츠 관리 시스템(Contents Management System: CMS)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후이마이그룹은 TV, 네트워크, 휴대전화, 유선 전화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혁신적인 비디오 기반 판매 형식을 개발해 중국 내 '비디오 쇼팅' 입계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34개 성 가운데 28개 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채널인 유고(UGO, www.ugoshop.com), 사상고(www.ssgo.com)와 지방 채널인 산자고(三佳物), 아이자고(家物), 현심고(全心物), 베이리고(每日物)의 총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제머나이소프트의 '해러리얼'이 적용된 후이마이그룹의 비디오 쇼팅 CMS 메인 화면

후이마이그룹은 최근 급증하는 콘텐츠 수요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영상 제작 시스템과 아카이브 환경의 개선이 필요했다. 그러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영상 관리 시스템은 복잡하고 효율적으로 연동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소거 통합 관리, 업무 자동화, 작업 효율 향상이 가능한 고도화된 미디어 관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머나이소프트의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제머나이소프트의 '해러리얼(Anef)'을 기반으로 후이마이그룹 비디오 쇼팅 채널의 제작 과정에서 사용하는 영상을 보관 검색·재사용할 수 있는 통합 미디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여러 형태의 영상들을 등록, 편집, 심의, 관리 및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영상을 저해상도로 전환, 영상의 조화·다운로드, 영상 소거 마이그레이션 및 송출, 소거 녹화와 저장 등의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후이마이그룹의 푸웨이징 회장은 "제머나이소프트는 다수의 구축 사례를 통해 성숙한 기술력과 최고 수준의 서비스 능력을 입증해왔다. 이러한 풍부한 구축 경험을 토대로 후이마이그룹에 꼭 필요한 시스템의 통합과 자동화를 실현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머나이소프트의 강진욱 대표는 "이번 사업은 단순 솔루션 공급이 아니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중국 대형 방송국의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개선하는 의미 있는 사례이며, 중국 업체의 CMS를 우리 제품으로 교체함으로써 제머나이소프트의 기술력을 중국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판매로 제머나이소프트는 홍콩, 태국 등지에 솔루션을